

외국의 大學入試制度

—英國·西獨·日本을 중심으로—

李 圭 煥

(梨花女大 教育學科)

I

외국에 있어, 특히 歐美에 있어 入試의 機能에 대한 논쟁은 언제나 계속되고 있다. 현재까지 논의되어 온 입시의 기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① 학교교육의 성과를 평가해 본다.
- ② 학생들에게 학습동기를 유발한다.
- ③ 고등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데 이용한다.
- ④ 사회 진출을 위한 選拔을 한다.

이 중에서도 가장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네번째의 사회 진출을 위한 선발에 관한 것이다. 이를테면 大學 入學者를 선발하는 제도는 청소년들에 있어서 어떠한 人生機會 또는 社會機會를 분배받는가의 문제이고, 결국은 階層上昇移動의 문제이다. 歐美에 있어 19세기까지만 해도 출세하고 큰 인물이 되려면 정직·군면하고 雄志를 가질 것이 요구되었다.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는 인격이나 태도는 주로 家庭·敎會·地域社會에서 형성되었고, 대학에서 형성되는 일은 드물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발달은 출세 또는 사회 진출 요소로서의 정직·군면·용지의 기능을 후퇴시켰다. 따라서

대학에서가 아니면 고도로 발달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얻을 수 없게 되었고, 결국 학교교육은 특히 대학교육은 사회분배를 통한 사회적 성공이나 사회계층 상승의 수단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특히 대학의 質과 사회적 위신은 사회 구조를 오르내리는 엘리베이터의 質이 되므로 사람들은 전신전력을 다하여 일류대학에 자녀들을 입학시키려 한다. 따라서 일류대학에의 입학은 모든 사람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지 않을 수 없다.

大學 入試의 方法은 국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그것을 종합해서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의 4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① 대학별로 실시하는 입학경쟁시험
- ② 고등학교별로 실시하는 졸업시험
- ③ 고등학교의 성적(내신서)에 의한 사정
- ④ 국가 또는 다른 외부적 기관에서 행하는 통일적 시험

종전에는 대학별로 실시하는 입학경쟁시험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많았으나 현재에는 국가 또는 다른 외부적 기관에서 행하는 통일적 시험 방식을 채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어느 의미에서 영국, 서독, 프랑스는 이러한 유형의 시험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도 1973년까지만 해도 대학별

로 실시하는 입학경쟁 시험제도를 전국적으로 적용하고 있었는데, 1974년도부터는 國·公立大學에 한해서 大學別로 실시하는 入試를 하기 전에 공통 一次試驗을 모든 지원생들에게 과하기로 하였다. 이 공통시험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서, 서구에 있어서와 같이 국가적인 통일적 입시제도를 도입하려는 준비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일본에 있어서 대학 입학자를 선발하는 권한은 각 대학측에 있지만, 국가에서 실시하는 공통 一次試驗의 결과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고등교육의 대중화에 따라 외국 선진국가에 있어서는 대학 입학 희망자수가 격증하여 문자 그대로 고등교육의 대중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적절한 사람을 선발하여 입학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대학에 입학하는 것도 문제지만, 어떠한 대학에 그리고 어떠한 전공 학과에 입학하는가는 외국 선진국에 있어서도 지원생에 있어 하나의 심각한 문제로 되고 있다.

II

선진국의 대학입시 제도에 관해서 논하고 싶다. 그러나 지면의 제한이 있고 해서 한국의 입시 제도의 개선에 유익한 시사를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국가의 입시제도에 관해서만 언급할 것이다.

1. 英國의 경우

영국에 있어서는, 대학 입학자를 선발하는 데 이용되는 시험이 大學入試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에의 진출 또는 사회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것과 같은 社會的 機能을 수행하고 있다.

대학 입학자의 선발에 이용되는 시험은 원칙적으로 GCE 시험 (General Certificate of Education Examination)과 성적이 우수한 경우 동일시되는 CSE 시험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Examination)이다. GCE 시험은 大學을 중심으로 한 8개의 독립된 시험기관에서 관리·운영된다. 그리고 이 시험은 普通水準(Ordinary

Level)과 上級水準(Advanced Level)의 2단계에 걸쳐 행하여진다. 대학 입학자격은 이 두 수준의 시험 과목수와 그 성적에 의해서 표시된다. 'O' 수준의 시험은 중등학교 5學年을 수료할 때 행하여지는데, 응시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은 16세이다. 'A' 수준의 시험은 제 6 학급(the sixth form) 과정에서 2년을 더 학습한 후에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고, 이에 응시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은 18세이다. 일반적으로 GCE 시험에서 5 과목(이 중 'A' 水準에서 2과목, 'O' 水準에서 3과목)을 합격하면 대학 입학자격이 인정된다. 예외로서 6과목(이 중 'O' 水準에서 3과목, 'A' 水準에서 3과목)에 합격하면 입학할 수가 있는 대학도 있다.

GCE 시험 과목은 세분화되고 있다. 예로서 歷史라는 教科에 있어서는 一般史, 古代史, 그리스 및 로마史, 英國史 등 서너 과목으로 분화되고 있다. 따라서 시험과목으로 제시되는 과목은 모두 약 150과목이나 된다. GCE 시험의 전신으로 볼 수 있는 '中等學校 修了試驗'이 1917년에 제도화되었는데, 이것은 거의 100 종류나 되는 시험을 통·폐합하여 마련된 것이었다. '中等學校 修了試驗'은 대학 입학자격을 결정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社會機關에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기능도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시험과목이 광범위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다.

GCE 시험은 이러한 多目的 機能을 수행하고 있는 시험제도를 개선·발전시킨 것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험과목을 광범위하게 제시하게 된 것이다.

GCE 시험은 1951년에 시행되었다. 종전의 '中等學校 修了試驗'은 특정한 教科群의 모든 과목에 동시에 합격하지 않으면 불합격으로 판정하는 제도였는데, GCE 시험에서는 각 과목別로 합격·불합격이 독립적으로 판정되는 소위 科目別試驗制度가 채택되었다. 따라서 GCE 시험 응시자는 年 2회(여름과 겨울)에 걸쳐 실시되는 시험에 의해서 합격한 과목수를 累積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시험제도는 중등학교가 教科群 編成에 집착하지 않고,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CSE(中等教育證)을 위한 시험은 1965년에 처

음으로 실시되었는데, 14개의 地域委員會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 그리고 GCE 시험에서와 같이 각 교과목 단위로 시험이 행하여진다. 이 시험은 5년의 중등교육을 수료했거나 또는 수료할 예정인 모든 형태의 학교 학생들에게 개방된다. 합격은 5등급으로 표시되는데, 최고 등급은 GCE 'O' 수준 시험에서의 합격과 동일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영국에 있어, 거의 모든 大學은 GCE 시험에서 얻은 성적과 면접에 의해서 입학자격을 결정한다. 시험 성적은 학교에 통지되고 학교는 그것을 응시자에게 전달한다. 최근에는 GCE 시험에 합격한 자가 개인적으로 희망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大學入學許可中央評議會(Universities Central Council on Admission)를 통해서 대학을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종전에는 개별적 지원으로 인하여 어느 대학에서는 정원의 확보가 어렵게 되었고, 어느 대학에서는 정원 이상이 지원한 결과 많은 수가 入學이 거절되어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원자는 大學許可中央評議會에 第5志望까지의 순위를 매겨 GCE 시험의 성적과 함께 원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評議會는 제 1 지원 대학부터 수속을 해 준다. 지원자는 이에 따라 지방대학에 가서 면접을 받은 후 그에 대한 入學許可의 가부가 결정된다. 만약 입학이 허가되지 않으면 제 2 지원 대학에 가서 면접을 받게 된다. GCE 성적이 우수한 지방자는 제 1 또는 제 2 지방대학의 專攻學科에 입학이 허가되는 것이 보통이다.

영국에서는 大學入學者 選拔을 위한 현행 제도에 대한 改革案이 공포되었는데 이 중의 하나는 16歲時의 GCE 'O' 수준의 시험과 CSE 시험을 통합하여 GCSE 시험(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Examination)으로 하려는 案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18歲時의 GCE 'A' 수준의 시험을 普通(Normal=N)과 上級(Further=F)의 두 종류로 하고, 시험과목을 5科目(N+F=5)으로 하려는 案이다.

현재 16세의 시험에서는 GCE 'O' 수준의 시험과 CSE 시험이 병존하고 있다. 전자는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의 기초적 능력을 평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동일 年齡層의 약 20%가 합격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후자는 대학 진학을 지망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서 1965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것으로서 完成教育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시험이다. 兩者를 통합한 새로운 GCSE 시험에서는 科目別로 上位 60%를 합격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을 7等級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병존하고 있는 두 종류의 시험을 單一化한, 그와 같은 試驗制度案은 벌써 1971년에 學校評議會에 의해서 발표된 것이었다. 政府는 1978년 10월에 그것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던 워델委員會(Waddel Committee)의 보고서에 기초해서 白帛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서 單一化된 시험제도 안을 채용할 방침을 공포하고 있다. 그리고 18세 시험인 GCE 'A' 수준의 시험을 개혁하여 N-F 시험으로 하는 案은 1973년에 學校評議會와 大學入學問題常設會議의 合同會議에 의해서 구상·제안되고 있다.

그 후 合同小委員會는 1978년에 N-F 試驗制度 실시의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워킹 페이퍼(Working Paper 60)에서 발표하고 있다. N-F 시험을 구상하게 된 이유로서는 ① 中等學校 제 6 학급(the sixth form)의 대중화에 따른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필요에 대응한 교육과정의 개혁 ② 제 6 학급에서의 전문화의 정도 완화와 학습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 그리고 ③ 專門分化하는 시기를 가능한 한 늦출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2. 西獨의 경우

대학 入學資格은 원칙적으로 아비투어(Abitur)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부여된다. 아비투어 시험은 人文系 中等學校인 김나지움의 졸업시험인 동시에 대학 입학 자격시험이다. 이 시험은 국가시험으로 각 김나지움에 조직된 試驗委員會에 의해서 실시된다. 시험위원회는 委員長이 되는 邦教育行政當局의 대표 또는 그 代理(대부분의 경우 해당 김나지움의 교장)와 최종 학년(제 9 학년)의 담임 敎師 등으로 구성된다.

아비투어 시험은 필기시험, 구술시험, 또는 실

기시험으로 나누어진다. 필기시험 과목은 8·9학년에서 이수하는 주요 必須科目 4科目이다. 이 중 國語와 數學의 2과목은 모든 지원자가 공동으로 응시해야 하고, 나머지 2과목은 文科系列과 理科系列별로 지정된다. 구술시험은 ① 필기시험의 4과목 ② 社會科 ③ 제 8·9학년의 이수 과목에서 선택한 1과목에 대해서 행하여진다. 실기시험 과목은 일반적으로 體育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音樂 또는 美術 시험도 행하여진다.

필기시험 4과목의 시험문제 작성은 두 가지 방식에 의해서 행하여진다. 즉 하나는 각 김나지움의 시험위원회가 작성한 문제를 邦教育行政當局이 심사 및 결정하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邦文敎部 자체에서 시험문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후자의 경우 시험은 邦의 전 지역에 걸쳐 동일적으로 실시한다.

시험결과의 채점 또는 評定은 각 고등학교 시험위원회가 행한다. 각 시험과목의 성적은 1(우수)에서부터 6(불가)까지의 6단계로 명정된다. 全科目에서 4 이상의 평점을 받은 자는 무조건 合格으로 판정한다.

서독에서는 예비시험에 합격하면, 개인이 원하는 대학의 학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따라서 大學別로 실시하는 입학 시험은 없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사람수의 증가에 따라 醫·藥·齒醫學系나 自然科學系의 일부 學科에 있어서는 지원자수가 시설 및 설비의 수요 능력을 상회하는 경우가 있어, 수시로 入學制限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지원자는 일정 기간 동안 집에서 대기하게 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待期의 순위를 정하거나 선발하는 시험을 系列別 또는 學科別로 치루게 된다. 1972년까지만 해도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정원이 넘는 學科나 學部에의 입학을 허가하는 것은 각 大學의 책임이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전국적으로 入學許可條件을 통일할 필요가 생기자, 1972년에 이루어진 諸邦間協定에 의거해서 中央學籍配分機關(Zentralstelle für die Vergabe von Studienplätzen)을 설치하게 되었다. 이 기관의 管理委員會는 어느 학과에 대해 입학 제한을 해야 하는가를 결정하고, 입학 제한이 적용되

는 學科의 선발기준을 설정한다. 따라서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가 입학 제한을 하고 있는 학과에 지원하는 경우, 中央學籍配分機關에 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지원자가 선발되고, 어느 大學 어느 學科에 입학할 것이 결정되면 대학은 그 학생을 받아 주어야 한다.

서독의 大學 入學者 選拔制度는 1976년에 ‘大學基本法(Hochschulrahmengesetz)’이 공포·실시된 후, 근본적인 개혁을 시도했다. 그리고 그 법의 실시를 고려해서 1978년 6월에 맺어진 ‘學籍配分에 관한 諸邦間協定’은 금일의 大學入學制를 전국적으로 제조정하고, 발전하는 고등교육에 대응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대학 입학자를 選拔하는 原則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1) 成就 또는 適性原則(Herstungs oder Eigenschaftsprinzip)

成就 또는 適性原則이란 예비시험에서 얻은 評點, 이를테면 學力과 適性を 기준으로 해서 大學入學을 허가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러한 원칙이 1978년의 새로운 諸邦間協定에 따른 테스트의 도입에 의해서 종전보다 한층 더 강화되었다.

즉 종전에는 예비시험의 성적만이 成就 또는 適性の 原則에 해당되었는데, 테스트의 도입에 의해 예비시험에서 증명되지 않은 能力 또는 適性が 발견되고, 따라서 새로 증명된 능력이나 적성은 지망하는 專攻學科의 학습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하나의 중요한 선발기준이 되었다. 이 원칙을 확대·적용함으로써 예비시험 성적이 낮기 때문에 제일차적으로 지원한 학과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도 입학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증대시켰다.

(2) 待期順 原則(Anciennitätsprinzip)

1972년의 諸邦間協定은 입학이 제한되고 있는, 이를테면 定員制를 실시하는 학과의 선발기준으로서, 예비시험 성적 외에 入學을 대기하는 기간이 긴 지원자에 대해 순서적으로 學籍을 부여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는데, 이 목적은 모든 지원자들에게 입학 기회를 보장한다는 데 있었다. 그러나 지원자 수가 많은 학과, 특히 醫學科의 대기 기간은 지나치게 길어서 큰 문제를 제기하

게 되었다. 예를 들어 1976년의 예비시험 응시자의 경우 醫學科에 대기자 전원을 입학시키려면 약 16년이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와, 그러한 규정이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규정이 지향하고 있는 機會均等の 축진이 실질적으로 뜻한 대로 실천화되고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특히 女子 지원자 또는 노동자의 자제들은 대기하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지원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되기도 했다.

그러나 대기 기간의 폐지는 特別選拔措置에만 적용되고, 一般選拔措置에서는 待期順原則이 아직도 적용된다. 특별 선발조치란 입학이 가능한 예비시험 결과의 評點이 대단히 높은 자들이 몰려 대기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학과에 적용된다. 이에 대해서 일반선발 조치는 入學制限은 있지만 대기 기간이 장기가 아니고, 3년 이내인 학과에 적용된다. 따라서 장기간 대기할 수 있는 것은 醫學을 공부하려는 동기가 강한 자 또는 가정의 경제적 여유가 있는 자에게 있어 유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단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1978년의 協定은 待期順原則을 폐지하고, 대신 能力 또는 適性原則의 해당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기회균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입학이 가능하고 예비시험의 評點이 높은 자가 집중하지 않는 학과에 적용된다. 따라서 待期順原則은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成就 및 適性原則과 융합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3. 日本의 경우

1976년도까지만 해도 일본에서 大學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얻으려면, ① 고등학교의 전과정을 수료하거나, 감독청에 의해서 그와 동등한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자가 大學別로 실시되는 입학경쟁시험에 합격하고, ② 신체검사에 합격하고, ③ 고등학교 교장이 제출한 지원자에 대한 內申書가 바람직해야 했다.

시험과목에 대해서 말하자면, 과목을 일률적으로 정해 놓고 있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國語, 數學, 自然科學, 社會, 外國語 등이 입시 과목으로 되고 있었다.

그러나 1977년도에 大學入學 選拔方式에 대한 획기적인 개혁이 있었다. 즉 새로운 방식에 의해서 國·公立大學의 입학자 선발이 1977년(昭和 54년)부터 행하여지게 되었다. 새로운 방식이란 國立의 '大學入試센터' 주관하에 행하여지는 公通 一次試驗과 자 大學別로 실시되는 二次試驗의 결과를 종합해서 入學許可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이 방식은 종전의 國立大學의 一期校, 二期校와 같은 입시 기일을 구별하지 않고 公立大學을 포함해서 모든 國立大學이 동일한 날에 시험을 실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國·公立大學의 入試 期日의 동일화를 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대학 入試改革의 경과를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文部省에서 소집한 "大學 入學者 選拔方法의 改善에 관한 會談"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회의는 1968년(昭和 46년) 12월에 회의 내용을 中間報告로써 발표하고, 다음 해인 1969년 12월에는 國立大學 共通學力試驗에 관한 구상이 수록된 최종 보고서를 공표했던 것이었다. 이러한 文部省의 구성을 기초로 하여, 1970년에는 國立大學協會 入試調査特別委員會가 "全國 公通 第一次試驗에 관한 종합"을 발표했다. 그리고 1971년 이후 文部省의 연구위탁비를 받아 國立大學協會 入試改善調査委員會는 公通 一次試驗 模擬테스트의 실시를 포함한 조사·연구를 계속하였는데, 이 연구 결과에 기초해서 1975년(昭和 52년) 5월에 國立大學 入試센터를 정식으로 설치하게 된 것이었다.

入試改善調査委員會에 따르면, 公通 一次試驗은 國立大學의 입학자 선발의 일부로서, 전 국립대학이 협동해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립대학 전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조직을 갖고, 국립대학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國立의 大學入試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이 센터는 각 대학과 협동하여 문제 작성, 채점, 입학자 선발에 대해서 연구하는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公通 一次試驗의 教科 및 科目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國語: 現代國語, 古典 I 甲을 합하여 1과목
 社會: 倫理·社會, 政治·經濟, 日本史, 世界史, 地理 A, 地理 B 중에서 2과목을 시

험장에서 선택한다. 그러나 地理 A와 地理 B를 선택하여 2과목으로 할 수는 없다.

數學：數學一般(이수자에 한하여 시험 신청시에 선택) 또는 數學 I의 1과목

理科：基礎理科 1과목(이수자에 한하여 시험 신청시에 선택) 또는 物理 I, 化學 I, 生物 I, 地學 I에서 2과목을 시험장에서 선택

外國語：英語 A(이수자에 한함)

英語 B, 獨語, 佛語 중에서 1과목을 시험 신청시에 선택

이와 같은 敎科 또는 科目은 고등학교에서 필수로서 이수한 것이다. 그러나 職業敎科 또는 科目은 大學別로 실시하는 二次試驗에서 大學 또는 學部의 특성을 참고하여 배려하도록 되어 있다. 출제형식 또는 방법은 수험생 수가 수십만이 넘고 단기간에 채점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객관식 테스트를 하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시험문제의 출제는 國立大學 敎員으로 구성되는 敎科專門委員會가 행하며, 文科系와 理科系의 구별을 하지 않기로 되어 있다.

단적으로 표현해서 공통 一次試驗은, 고등학교에 있어서의 一般的 學習의 成就度를 평가하는 것을 제일의 목적으로 하는 國立大學 入學을 위한 學力試驗이다. 이에 대해서 大學別로 실시하는 제 2차 시험은 각 대학의 학부 또는 學科에 대한 適性 또는 綜合力과 思考力을 평가하는 것을 제일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二次에 걸친 시험에 의해서 적절한 입학자를 보다 신중하게 선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공통 一次試驗이 실시되기 전에 大學別 入試에 의해서만 入學者를 선발하였던 종전 방식에 대한 비판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1회의 선발시험에 의해서 입학의 可否를 판정하는 것은 '一發勝負'와 같은 것이다.
- ② 入試의 敎科 및 科目의 설정과 이에 대한 평가방법은 수험생의 적성을 정확하게 판정하는 데 적절한 것은 아니다.
- ③ 綜合力과 思考力 등을 평가하는 데 적절한 것이 아니다.
- ④ 시험문제가 고등학교 이상의 수준으로, 고

등학교 교육과 유리되고 있다. 즉 難問, 奇問이 있는 출제이다.

공통 一次試驗이 실시되었지만, 입학자 선발에 대한 책임을 각 대학이 지고 있다. 따라서 각 대학은 공통 一次試驗의 결과는 참고로 하고, 二次試驗의 결과에 의해서만 入學許可를 결정해도 좋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一次試驗의 성적에 의해서만 선발해도 무방하다. 한 조사에 의하면 1979년의 각 國·公立大學의 二次試驗에 있어서는 學力檢査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54개 대학 62개 學部였다. 그리고 동년에, 實技檢査를 실시한 대학은 37개, 學部 44개, 小論文을 과한 대학은 65개, 學部 98개이었다. 그러나 많은 대학이 一次와 二次試驗의 점수를 종합해서 入學을 결정하고 있다. 國立의 8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공통 一次試驗과 大學別 入試 결과와의 相關이 E大學의 경우 0.835, H大學의 경우 0.55로서 兩 시험의 상관은 높은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새로운 入學者 選拔制度에 대한 비판은 많다. 高校측에서는 새로운 大學 入試方式을 改惡이라고 비난하는 경향조차 있다. 이러한 비난에 대한 제일가는 이유는 새로운 방식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과중 부담을 준다는 것에 관계한다.

國立大學協會는 새로운 入試制度가 受験地獄의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공통 一次試驗 외에, 각 國·公立大學別로 실시하는 二次 學力테스트가 있고, 私立大學은 종전의 入試方式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三重의 부담이 고교생에게 가해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國立 1기와 2기의 구별이 없어지고, 公立大學도 동일한 시험 기일을 엄수하고 있기 때문에 종래의 3회의 기회가 1회의 기회로 줄어들어, 사실상 해소하려 했던 一發勝負를 한층 더 조장했다고 비판도 받고 있다.

私立大學측도 새로운 入試制度에 대해서 냉정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전 大學生の 80%가 사립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사립대학을 제외한 入試改革은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Ⅲ

외국 주요 선진국의 입시제도에 대한 연구는 한국의 대학 입시제도 개선안을 작성하는 데 유익한 示唆點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번째로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시사점은 영국의 GCE 시험방식에 관한 것이다. GCE 시험에서는 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전공할 예정인 학문을 고려해서 그와 관계되는 교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극히 소수의 교과만이 시험과목에 포함되지 않고 중등학교에서 학습하고 있는 모든 교과목이 시험에 포함되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한국에 있어서는 대학입시에 포함되는 교과 또는 과목만이 고등학교에서 우대를 받고 그 외의 교과는 푸대접을 받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통하여 全人的 人間形成을 촉진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교과를 택하여 응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학에는 여러 종류의 교육과정 계열 또는 전공학과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한 계열과 학과에 관계가 깊은 교과목을 학생들이 택하여 응시케 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다. 물론 모든 학생이 응시하는 공통 필수교과도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한다.

두번째로 언급하고 싶은 시사점은 대학입시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학생들이 원하는 학문을 전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주선해 주는 것이다. 서독에서는 우수한 자가 특정한 학과에 정원 이상으로 모이는 경우, 중앙의 學籍配分委員會를 설치하여 입학하는 시기가 늦어서 대기시켜서라도 원하는 특정한 학과에 입학할 수 있도록 후

원하고 있다. 한국에 있어서는 우수한 학생이 정원 이상으로 모인 학과에 지원해서 탈락하면 다음 해에 제시험을 치워야 하는데 이것은 시간적, 에너지적, 경제적 낭비이다. 우수한 능력을 나타낸 대학 지망자들이 원하는 학문을 전공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는 것은 유능한 인제가 희생될 없이 그들이 지니고 있는 능력을 최선으로 개발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최선책이 될 것이다.

세번째로 언급하고 싶은 시사점은 입학자 선발의 권한을 대학측에 어느 정도 부여하는 것과 관계한다. 일본에서는 國·公立大學인 경우 공통 一次試驗이 있지만 입학자 선발의 권한은 각 대학에 있다. 물론 일본에 있어 공통 一次試驗의 실시는 국가가 대학 입학자 선발에 관여하려는 시도라고 비판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대학별로 실시하는 二次試驗이 있고 공통 一次試驗 결과의 활용은 대학 당국의 자유의사에 있기 때문에 입학자 선발의 권한은 각 대학이 갖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학력 고사의 결과가 전적으로 대학 입학허가의 가부를 좌우하기 때문에 어느 의미에서 국가가 대학 입학선발의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와 같이 각 대학이 입학자를 선발하는 권한을 전적으로 가질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학의 종류나 진공계열에 따라 입학을 허가하고 싶은 지원자가 있으므로 대학 당국이 생각하는 적절한 지원자를 선발하는 것은, 고등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역동성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